

05/03/2009

## 매일 차고만 있어도 음경 36% 길어지는 장치 개발

[메디컬투데이 콰도훈 기자]



Penile Extender 라는 음경을 확대시키는 장치를 매일 6개월간 착용한 남성들이 음경길이가 32%가량 길어지고 발기능이 36% 이상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.

6일 터프츠대학 연구팀이 BJU International 지에 밝힌 연구결과 이 같은 치료장치가 음경을 늘리는 수술에 대한 대안적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번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정신적성적 카운셀링을 받은 후 Andro-Penis 라는 이 같은 장치를 매일 4~6시간 6개월간 착용했다.

남성들은 첫 한 달 동안은 평균 5시간 이 같은 장치를 착용한 후 다음 2달은 5시간, 이 후 3개월은 4시간 정도 착용했다.

연구결과 남성의 평균 음경 길이는 연구시작 당시 7.15cm 였으나 12달 후에는 9.45cm로 32%가량 길어졌다.

또한 최대로 커졌을시 음경 길이는 연구시작 당시 9.62cm 였으나 12달 후에는 11.32cm로 18%가량 증가했다.

발기능의 경우에는 연구시작 당시 30점 만점에 19.9 였으나 12개월 후에는 27.1로 36%가량 증가했다.

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확증이 된다면 이 같은 장치가 음경확대를 원하는 사람에 있어서 1차적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메디컬투데이 콰도훈 기자 (kwakdo97@mdtoday.co.kr)

블로그 가기 <http://kwakdo97.mdtoday.co.kr>